

‘하자 투성이’ 남악신도시 아파트 민원 쇄도

무안군, 입주민 반발에도 사용승인...되레 업체 두둔 북 갤러리 등 공공시설 건립 안돼 ‘허위광고’ 주장도

전남도청이 자리한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무안군이 업체를 두둔해 사용승인까지 내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규모의 소형 아파트로 395가구 규모다. 가구당 8.6건의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50여 가구가 미분양돼 하자 집계에서 빠진 점을 감안하면 하자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태라며 무안군 홈페이지 ‘무안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은 창호와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싱크대

의 완벽한 하자보수 이행을 전제로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틀 만에 슬그머니 승인해 줬다. 군과 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S아파트는 아직 사용(검사)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하자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한 후 사용승인을 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우뭇가사리 채취 6일 완도군 화흥포항 부근 바닷가에서 아낙네들이 썰물에 맞춰 바위에 자생하는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무안 금광아파트 200세대 입주민 ‘구제의 길’ 열렸다

이윤석 의원 발의 ‘부도공공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무안 금광아파트 200세대 주민 500여명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6일 무안군과 이윤석 국회의원은 “지난 4월29일 이 의원이 발의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232인, 기권5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LH)가 국비를 들여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

참조기 종묘 조기생산 기술 개발

전남해수원, 1년안에 출하 가능...양식업 활성화 도움

참조기의 종묘 생산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기술이 개발됐다. 참조기 종묘의 조기(早期)생산으로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워 양식이 어려웠던 참조기를 1년 안에 출하가 가능한 크기로 키울 수 있게 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소는 보통 5~6월인 참조기 산란 시기를 2개월 앞당겨 4월초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영광지소는 산란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 어미 물고기(親魚)에게 하루 평균 3시간씩 빛(光)주기를 늘렸다. 수온도 점차 높여 자연상태의 수온보다 최대 3도가량 올렸다. 물고기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먹이도 생새우, 굴, 바지락, 매실 발효액 등 이른바 건강식으로 ‘산모관리’를 철저히 했다. 참조기는 늦봄 산란 뒤 2개월 후 부화하는데 이 치어는 연말까지 평균 80g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아 사실상 상품성이 없다. 그러나 부화시기가 2개월가량 앞

당겨지면 몸길이 20~21cm에 몸무게 100g 이상으로 자랄 수 있어 출하가 가능하다. 난대성 어종에 속하는 참조기는 양식장에서 겨울철 한파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해를 넘길 경우 양식장 가온(加溫)에 따른 운영비 부담으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참조기 양식이 본격화되면 납치나 우락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종을 대체, 잠재한 국내 양식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무안경찰, 치안협의회 개최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 앞장

무안경찰(서장 최삼동)은 6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김철주 무안군수 등 무안지역 기관·사회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지역 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사회악을 척결하는데 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최 서장은 이날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역 치안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전북

전주관광호텔 ‘역사 속으로’ 전북지역 최초 호텔 요양병원 활용 계획

1978년 건립된 전북 최초 호텔인 전주관광호텔이 35년의 역사를 접고 뒤안길로 사라진다. 6일 전라도에 따르면 전주 시 완산구 다기동에 있는 이 관광호텔은 최근 도내 A의료법인과 매각 계약을 체결해 호텔 업무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의료법인은 호텔 내부를 리모델링한 뒤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42개 객실과 웨딩홀, 연회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은 도내에 번듯한 호텔이 없던 시절에 각계의 귀한 손님이 장소로 주목을 받았다. 또 정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에는 중앙 또는 지방 정치인들의 소통·교류의 장으로 기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 정치 국민회의 총재 시절인 1995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정치권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곳도 바로 이 곳이었다. 업계는 관광호텔이 전주리베라호텔 등 후발주자들과 경쟁에서 밀려 경영이 어려워지자 매각한 것으로 풀이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진공원 연못 새단장 전주 덕진공원 연못이 깔끔하게 단장됐다. 전주시는 과다하게 확산한 연과 무분별하게 번식한 외래 식물을 제거하는 한편 오염된 퇴적토를 파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제공)

‘장수순창’ 신성장 동력사업 찾는다

강천산 음용온천·발효식품 등 브랜드화 군, 지역민 소득증대 도움 연구용역 추진

순창군이 물 좋은 장수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고 이와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강천산 음용온천과 나노버블기술, 친환경농산물, 발효식품 등을 활용한 힐링산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치유밸리지 조성 사업 등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과제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의 연계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용역 주요 내용은 ▲순창군의 개

북신안 농산물 시설 광역친환경단지 준공

111억 투입 4년만에 완공 지난 2009년 3월 완우림이 양식장 시설로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모두 11개 시설에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21억3500만원 등 모두 111억3500만원이 투입됐다. 신안군은 광역친환경단지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 농업북신안조합장은 “지역 농산물의 명성과 가치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ee@

단신

남원 광한루원 민속체험 놀이 등 이벤트 행사

남원시 시설사업소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춘향·이도령 마스코트를 시작으로 무료 가운뎃주기, 시조시연 및 체험, 신관사포부인행사, 전통헌례, 봄 꽃과 토끼이리를 이용한 포토존 조성, 민속체험 놀이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한루원을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한 행운의 입장객 환영이벤트를 실시 기념촬영권 및 꽃다발을 증정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군, 학업 우수학생 9명 선발 장학금 지급

순창군은 최근 군 영산회의실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9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 우수자 14명의 학생을 신청받아 관련 조례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대학생 9명을 최종 선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 장학금은 순창군민이 주는 장학금이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고 훌륭하게 키워 나라의栋梁 순창군의 큰 재목으로 키워주시길”을 당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 전국 최우수 선정

고창군은 6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평가 심의회에서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이 165개 단지 중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채소·화훼·과실류 영농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운영평가로서 수출사업 50%, 조직운영 30%, 안정성 20%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태풍 피해 영향으로 과실생산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등 해외에 배 403t을 수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선교사 특별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3년 2번째 기획전으로 선교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6일 개막식을 갖고 ‘파란 논의 선교사가 전해준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국의 박물관 및 교회에서 협조를 받아 200여 점의 자료를 공개한다. 명성황후가 자신의 주치의였던 언

대도시 돌며 ‘삼채’ 홍보 나서 군산농기센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삼채’를 홍보하기 위해 삼채연구회, 큰들삼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 및 홍보투어를 나선다. 단맛, 쓴맛, 매운맛 등 3가지 때 때문에 삼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작목은 식이유형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아미노산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아토피 등 피부질환, 변비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